

오토쿠니데라 절

나가오카쿄시에 있는 오토쿠니데라 절은 진언종 사원으로서 형형색색의 모란으로 유명합니다. 드문 양식의 본존과 특징적인 표정의 수호신 비사문천 등 매우 흥미로운 불상이 많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오토쿠니데라 절은 역사가 깊어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하던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모란의 절

오토쿠니데라 절 경내에는 약 1,000 그루의 모란이 심어져 있어 향기가 짙은 커다란 꽃을 피웁니다. 이 모란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오토쿠니데라 절의 부흥을 위해 1940년에 나라현에 있는 진언종 총본산 하세데라 절에서 기증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현재는 정문에서 참배길 양쪽에 많이 심어져 있고, 경내와 본당 앞에도 화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 월에는 분홍색과 자주색, 노란색, 흰색 꽃이 만개합니다.

창건 당시의 역사

전승에 따르면 오토쿠니데라 절의 기원은 일본에 불교를 널리 알린 쇼토쿠 태자(574~622년)가 이곳에 건립한 것이라고 합니다. 784년에는 수도를 헤이조쿄(현재의 나라)에서 나가오카쿄로 옮기고 간무 천황(737~806년)이 오토쿠니데라 절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듬해에 천도를 담당한 고관이었던 후지와라노 다네쓰구(737~785년)가 암살당했습니다. 조사 결과 천황의 남동생인 사와라 친왕(750년 추정~785년)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친왕은 나가오카쿄 천도에 반대하는 세력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친왕은 오토쿠니데라 절에 유폐되었고 이후 아와지시마 섬(효고현의 세토 내해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뒤 가뭄과 기아, 그리고 황족의 죽음 등 재난이 나가오카쿄를 습격했는데, 이들은 사와라 친왕의 원혼의 소행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나가오카쿄로 수도를 옮긴지 불과 10년 뒤인 794년에 헤이안쿄(현재의 교토)로 다시 수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대한 승려, 구카이와 사이초

진언종의 개조이며 큰 영향력이 있었던 승려 구카이(774~835년)는 811년에 오토쿠니데라 절의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구카이가 하치만 대보살의 목상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하치만 대보살이 노인의 모습으로 구카이의 앞에 나타나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목상을 완성했습니다. 하치만이 구카이를 모델로 목체를 조각하고, 구카이가 하치만을 모델로 얼굴을 조각했다고 하는 이 독특한 조각상은 ‘하치만코보 합체대사(大師)’(고보(弘法)는 구카이의 시호)로 불리며 현

재는 오토쿠니데라 절의 본존으로서 33 년에 한 번만 일반에 공개됩니다. 812 년, 일본 천태종의 개조이며 구카이와 같은 시기에 당나라에서 불교를 배운 사이초(767~822 년)가 오토쿠니데라 절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밀교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사이초에게 구카이가 밀교의 비법을 전수함과 동시에 정통 계승자로 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경내

참배길을 따라가면 맨 먼저 보이는 곳이 맹세한 날수만큼 참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히기리(日限)지장존을 모시는 불당입니다. 그 주위에는 신자들이 봉납한 많은 작은 지장존이 늘어서 있는 석탑과 사와라 친왕 공양탑, 13 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경내 안쪽에는 본존인 합체대사상을 모시는 본당이 있고, 본당 앞에는 부동명왕상이 진좌하고 있습니다. 비샤문도(毘沙門堂)에 모셔져 있는 비사문천은 일반적으로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신이지만, 오토쿠니데라 절의 비사문천은 깊은 우수를 띤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드문 것입니다. 그리고 경내 남서쪽 모퉁이에 있는 진주하치만 신사에는 오토쿠니데라 절의 수호신인 하치만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